

스포츠경향

유니세프 측 “글로벌 청년 대표, 왜 BTS였나...” 선정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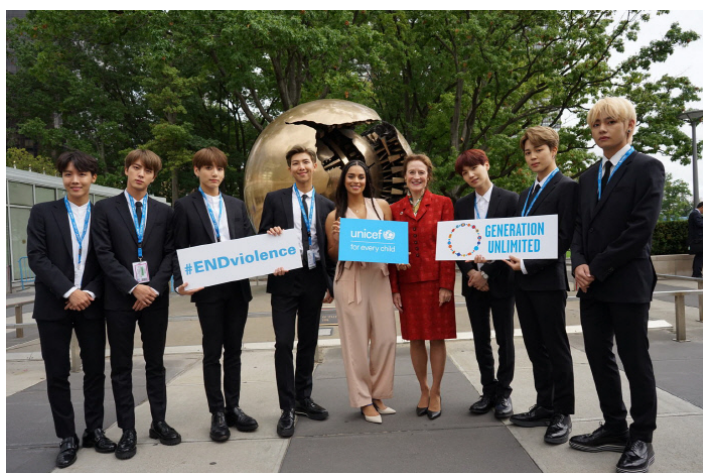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입력 : 2018.09.25 12:31:00

유니세프가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올 유엔총회에서 글로벌 청년세대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3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과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는 새로운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이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유니세프는 글로벌 청년대표로 방탄소년단을 선정해 유엔 총회 무대 연설을 가능케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와 방탄소년단. 사진제공 유니세프.



방탄소년단의 리더RM은 유엔 연설을 통해 “어린 시절 별을 보며 내가 세상을 구하는 슈퍼 히어로라고 상상했었는데, 10살때 쯤 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염려하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나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더라”고 회상하며, “그 시절 나의 안식처였던 음악은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며 나를 일깨웠다.”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이와 함께 “가슴을 뛰게 하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라는 메시지를 전해, 청년세대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방탄소년단의 유엔총회 참석을 주선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측은 모든 가능성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서 시작한다는 방탄소년단의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과 청년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자는 유니세프의 새로운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는 지향하는 가치가 같으며 초청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발표 행사에 함께 참석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은 “교육 기회 불평등과 취업 문제는 범세계적 이슈”라며 “국제사회, 정부, 민간이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파트너십으로 청년 세대의 미래는 훨씬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스포츠경향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